



임대료가 연체됐나요?

임차인(세입자)과 임대인(집주인)은 이미 걱정거리가 넘칩니다. 연체된 임대료가 그중 하나이어서는 안됩니다.

귀하가 코로나-19 사태로 인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, 임대료가 연체되어 있는 소득 적격 세입자이거나, 또는 임대료 연체로 소득 손실을 겪고 있는 집주인이라면, 귀하는 캘리포니아 코로나-19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재정적인 도움을 받을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.



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?

집주인은 코로나-19로 인해 연체된 임대료 때문에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득 기준에 부합하는 세입자를 둔 경우.

세입자는 코로나-19로 인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, 임대료나 공과금이 연체되었으며, 가구당 소득이 지역 중간소득의 80% 이상을 넘지 않는 경우.

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
집주인은 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 사이에 발생한 임대료 연체액의 80% 까지 받을 수 있으며 미납된 임대료의 20%는 포기하기로 동의해야 합니다.

자격이 되는 세입자는 집주인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 사이에 발생한 연체된 임대료의 25% 까지 집주인에게 직접 입금되는 방식으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. 집주인이 직접 입금 방식을 원치 않는다면, 25%의 지원금은 그간 미납된 임대료를 2021년 6월 30일까지 집주인에게 지불할 수 있도록 세입자에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. 2021년 6월 30일까지 밀린 임대료의 25%를 납부하는 것은 가주 코로나-19 세입자 구제법안인 SB91에 의거해 세입자들이 현재 거주하는 집에 계속 머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.

자격이 되는 세입자들은 현재 주거지에 계속 머물 수 있도록 앞으로 납부해야 하는 월 임대료의 25%에 달하는 지원금도 받을 수 있으며, 또한 향후 납부해야 하는 공과금의 100%도 최대 1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자격 여부를 확인하려면 지역 파트너 네트워크 (Local Partner Network) 기관을 찾아 도움을 받거나, 웹사이트 HousingsKey.com 방문 또는 무료 전화 833-430-2122로 연락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HousingsKey.com